

#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김 봉 환            김 계 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서울대 교육학과

본 연구의 첫번째 목적은 진로지도와 진로상담에 있어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발달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양자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를 만들고 이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학년의 진급에 따라서 두 측면이 실제로 발달하는가의 여부를 고찰하고, 양자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두번째 목적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라는 두 차원을 중심으로하여 대학생들을 양자간에 균형을 보이는 집단과 괴리를 보이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네가지 타입(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을 상정하고 이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아울러 학년의 진급에 따라서 네가지타입의 분포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네가지 타입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정체감과 특성불안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대학생 879명(남학생 409명, 여학생 470명)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수준검사, 진로준비행동검사, 진로정체감검사, 특성불안검사를 실시한 후, 다양한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결과 학년의 진급에 따라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자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두 개념을 중심으로 대상자들을 유형화 한 결과 네가지 타입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학년의 진급에 따라서 네가지 타입의 분포비율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각 타입들은 진로정체감과 특성불안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게 구별되는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결과를 선행연구들과 관련지어서 논의한 후 상담실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그리고 이에 관련된 연구분야에서는 진로결정수준(career decision level) 혹은 진로미결정(career indecision) 등을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 왔다(Slaney, 1988; Winer, 1992). 이와 더불어 개인의 특성과 진로발달과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지적 능력(Rose & Elton, 1971), 흥미(Lowe, 1981), 적성 및 성격(Walsh & Lewis, 1972) 등도 매우 중요한 변인들로 취급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진로에 관한 개인의 의사결정 태도와 의사결정의 과정 등도 중요한 탐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Osipow & Reed, 1985).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사항은 지금까지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의 연구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개인의 인지(cognition)나 태도(attitude)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반면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behavior)이나 혹은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 등을 포함하는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집중시켜 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진로지도나 진로상담의 장면에서는 진로성숙도나 진로정체감 등의 인지나 태도적인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진로에 관련한 준비행동(preparation behavior) 및 실천행위(implimentation)를 중요시하며, 이를 향상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iggio & Throckmorton, 1987; Speas, 1979). 예컨대

내담자에게 직업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취득시킨다거나, 내담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 직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권유한다거나, 혹은 면접에 대비한 사전훈련을 실시하는 것 등은 모두가 준비 및 실천행위에 관련되는 내용들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그리고 그에 관련된 연구분야에서는 인지나 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연구변인들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인지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가져왔을 뿐 행동적인 측면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아 왔다. 그 결과로 진로분야에 있어서는 행동에 대한 발달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행동의 측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적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논의될 유형화 연구에서도 행동측면은 전혀 부각되지 못하였다. 또한 상담과 지도의 실제에서는 행동을 어느정도 강조하지만 경험적인 연구에 토대를 둔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적은 것은 물론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법개발에도 소홀해 왔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터해서 본 연구에서는 첫번째 연구주제로서 진로발달 및 진로지도 분야에 있어서 인지와 행동에 관한 사항을 심층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대학생들 중에는 진로결정수준(인지)은 발달해 있는데 진로준비행동이 부진한 학생들, 혹은 진로준비행동은 앞서가는데 진로결정수준은 부족한 학생들이 있을 것임을 가정하고 연구를 수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이 사실이라고

할 경우 만약 진로지도나 진로상담의 장면에서 인지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면 전자의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을 아무런 지도나 상담이 필요없는 성숙한 집단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행동의 측면에만 초점을 둔다면 후자의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여기에서 언급된 두 집단은 문제의 성격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방식의 지도와 상담을 필요로 하게 된다.

한편,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상의 문제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한 진로상담 연구자들과 실천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 왔다. 연구와 실천의 측면에서 이들이 공유한 생각은 “차별적인 진단과 차별적인 처치(differential diagnosis and differential treatment)”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진로문제와 관련된 내담자들에게 동일성 신화(uniformity myths)에 입각해서 동일한 처치를 하기 보다는 내담자 각각의 특성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상담전략을 선택하여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진로상담 내담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진단이다.

이같은 판단에 이르러 진로상담 연구자 및 실천가들은 차별적인 진단을 구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첫번째 시도로 이들이 행한 것은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과 미결정 상태에 있는 학생들간의 차이를 밝히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상호 일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같은 이분법적인 구분에 만족하지 않았다(김봉환, 김계현, 1995). 그러

다가 일부의 연구자들이 진로결정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로 관심을 전환하였다(예컨대, Career Decision Scale, Osipow, Carney, Winer, Yanico, & Koschier, 1980; Vocational Decision Scale, Jones & Cheney, 1980). 이처럼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는 도구가 개발되자 많은 연구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진로결정수준과 여러가지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같은 측정도구들의 제작을 전후하여 진로결정수준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변인들로서는 불안(Mitchell & Krumboltz, 1984), 진로정체감(Holland & Holland, 1977), 통제 의 소재(Taylor, 1982), 자아존중감(Walsh & Osipow, 1973), 의사결정 양식(Lunneborg, 1978) 등이다. 이같은 단계를 거친후 나타난 아이디어가 미결정 학생들을 다양한 하위타입으로 분류하는 것이었다. 먼저 Holland와 Holland(1977)는 진로미결정 학생들이 다양한 하위타입으로 구성되는 이질적인 집단(heterogeneous group)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고 제안함으로써 진로미결정에 관한 연구를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특히 Salamone(1982)은 연구자들이 “미결정(undecided)”과 “결단성 부족(indecisive)”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으로써 진로미결정의 논의영역을 세분화시켰다. 여기에서 전자는 발달적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 반면 후자는 성격적인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유형화 연구들은 몇 가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진로미결정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가 처음에는 진로상담

내담자들에게 적합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되었으나 연구가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연구의 상당수는 진로상담의 실제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진로미결정의 유형을 다룬 모든 연구들이 그 일차적인 목적을 “차별적인 진단과 차별적인 처치”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인 시사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진로결정수준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실제로 이 분야를 탐구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연구결과간의 불일치를 인정하면서 계속적인 반복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후속연구들이 다른 표집을 대상으로 하여 선행연구의 결과를 검증하기 보다는 대다수의 연구가 상이한 표집방법으로 상이한 측정도구를 활용했기 때문에 각각의 연구들은 각기 독특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경우 무수한 유형들이 존재할 뿐이지 그 어느것 하나도 확신을 가지고 상담실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셋째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오직 진로미결정자들만을 중요한 연구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즉, 도구에 의한 측정상 진로결정자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외형상 진로를 결정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상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결정은 했으나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decided-uncomfortable) 사람들, 그리고 진로를 결정은 했으며 현재 상태에서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일단의 집단이 있

을 것임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번째 연구주제로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시각으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지도나 진로상담에 있어서 “행동차원”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상정한다. 아무리 자신의 진로에 대해 의식이나 태도가 성숙되어 있다고 해도 그에 따르는 준비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진로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즉 개인의 진로에 있어서도 인지와 행동이 조화롭게 발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진로상담 실제로 부터 문제의 출발을 삼고자 한다. 즉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 장면에서 던져지는 중요한 질문을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현재 당신의 진로결정 수준은 어떠한 상태인가?” 이며, 다른 하나는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당신은 현재 어느 정도의 실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적인 초점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자들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자들도 중요한 고려의 대상으로 본다. 즉, 측정도구상 진로결정자로 분류는 되지만 실제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결정을 했다고 하나 아무런 준비나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 혹은 자신의 능력 및 흥미와는 큰 거리가 있는 진로를 선택해 놓고 결정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물론 진로발달은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특히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업세계에로의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을 앞두고 있으므로 진로결정과 준비행위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고민사항들 중에서도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사항은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정신, 1991;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5).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 중에서도 특히 국립 사범대학생들을 연구의 초점으로 삼고자 한다. 지난 1990년 이전까지는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 국립의 사범대학 졸업자에 대해서 우선임용의 원칙을 적용해 왔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립 사범대학에 재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 “중등학교사”라는 것이 매우 분명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우선임용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0년 10월 8일) 이후 법적 신뢰이익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와 더불어 1994년부터 완전 공개전형의 원칙으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많은 국립 사범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있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임용고시의 경쟁률이 매우 높아져 합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인 반면, 사범대학생들은 직업선택에 있어서 ‘교직’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기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현재의 교원 양성체제는 매우 복잡하여 국립 사범대학생들이 자신의 위상을 정확히 찾기도 또한 힘든 일이다.

요컨대 이 연구는 진로선택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립 사범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을 발달적인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진로상담 장면에서 이들을 진단적으로 유형화 할 수 있는 틀을 설정하며, 유형화된 하위집단들의 특성을 밝혀서 이들에게 차별적인 개입을 시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 연구문제

### 1.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과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

진로발달 이론에 의하면 진로에 관한 지식이나 태도 등의 성숙은 생의 어느 한 시기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1회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애단계에 따라 변화하고 발달하는 것이라고 가정된다. 그렇다면 진로에 관한 태도의 범주에 속하는 ‘진로결정수준’도 학년(연령)이 올라감에 따라서 동시에 높아지는가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진로준비행동’도 생의 어느 한 시점에 이르러 갑자기 발생하는 특성을 지녔다기 보다는 생애단계에 따라 변화하고 발달하는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로에 관련된 준비행동도 학년(연령)이 올라함에 따라서 더욱 활발해 지는가의 여부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인지와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진로결정수준, 진로성숙도, 진로정체감 등 인지 및 태도적인 속성들이 진로준비행동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탐구과제라 할 수 있다.

## 2. 자기보고식 질문지와 면담에 의한 진로준비행동 측정결과의 일치성에 관한 문제

지금까지는 많은 연구들이 주로 진로에 관련된 인지나 태도의 측면에 관심을 가져왔고, 따라서 진로결정수준 등을 비롯한 태도나 인지와 관련된 측정도구는 상당히 여러종류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예컨대 진로성숙도 검사의 태도척도 및 능력척도, 진로정체감 검사 등). 그러나 진로준비행동의 측면에는 초점을 두지 않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로 그에 대한 측정문제도 연구자들로부터 외면당해 왔다. 그러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지도나 진로상담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구인이라면 그에 대한 측정문제도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진로준비행동검사)를 개발하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범대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직접적인 개인면담을 통해서도 그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이와 같은 두가지 측정방법(자기보고식 검사지 vs. 개인면담)의 결과들이 상호 얼마만큼 일치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 3.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위를 준거로한 유형화의 문제

진로상담의 연구와 실천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담자에 대한 ‘차별적인 진단과 차별적인 처치’에 관심을 두어오고 있다. 여기에서 차별적인 진단이란 곧 내담자들을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라는 두개의 차원을 준거로하여 연구 대상자들을 분류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가정하는 분류의 틀은 그림 1과 같다. 본 유형화의 틀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하기 위하여 두 차원 각각이 나타내는 개념을 살펴보면, 먼저 “진로결정수준”은 진로결정 혹은 진로미결정이라는 이분법적인 속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념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졸업 이후에 일과 관련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과 그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목표의 설정을 위해서 혹은 자신이 설정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행하는 다양한 준비활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이에선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행동,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행동, 진로지도 관련 활동에의 자발적인 참여, 목적달성에 필요한 도구(교재, 장비, 기기)의 구입 및 활용 등이 포함된다.

그림 1에서는 대학생들을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라는 두 차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가지 타입중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A타입은 진로결정수준이 높으며 진로준비행동도 매우 활발한 집단이다. 이들은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인 사고를 거쳐서 확실히 결정한 가운데 그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상적 타입(ideal type)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B타입은 진로결정수준은 높으나 진로준비행동이 매우 부족한 집단이다. 이들은 진로를 결정했다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 그를 추구하려고 하는 동기가 매우 미약하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내보이지 못하는 집단으로서 진지하지 못한 타입(pseudo type)이라 할 수 있다. C타입은 진로결정수준은 낮으나 진로준비행동은 매우 높은 집단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진로에 대해서 뚜렷한 방향감도 없으면서 진로와 관련하여 무엇인가 매우 활발히 추구하는 사람들로서 대체로 행동지향적인 타입(behavioral type)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D타입은 진로결정수준도 낮고 진로준비행동도 매우 빈약한 집단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진로에 대해서 뚜렷한 방향감도 없고 아울러 실제적인 진로준비행동도 매우 빈약한 집단으로서 미성숙 타입(immature type)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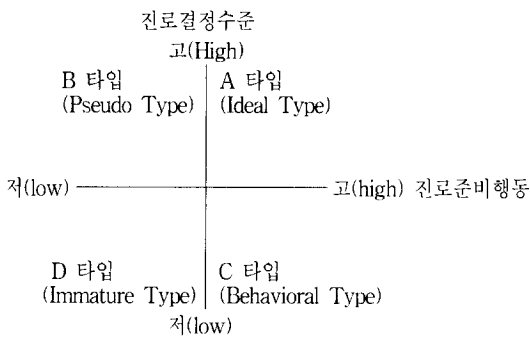


그림1.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유형화의 틀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간에 균형을 보이는 집단과 괴리를 보이는 집단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알아보려고 한다. 즉 위에서 상정한 네가지 타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 한다면 각 타입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 이와 같은 타입들을 측정도구가

구분해 낼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4. 학년별 타입분포의 변화에 관한 문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정한다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네 가지 타입의 분포에 변화가 발생하는가의 여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년이 낮은 집단에서는 B타입, C타입, D타입 등이 많이 존재하지만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서 A타입의 분포비율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D타입의 분포비율이 감소하는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물론 종단적인 연구가 요구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학년별로 표집된 대상들에 대해서 유사종단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적인 가정을 보다 확고하게 뒷받침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5. 유형화된 각 타입별 특성에 관한 문제

앞의 연구문제에서 상정한 네 가지 타입들은 각각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앞의 분류에서는 각 타입별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라는 정보밖에 없으므로 각 타입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지표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진로정체감이라는 변인에 있어서 각 타입이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이론적 근거에 의한다면 A타입이나 B타입이 C타입이나 D타입에 비해

서 진로정체감이 보다 일관성이 있고 안정적인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특성불안을 통해서도 각 타입간에 차이가 있는가의 여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예측을 한다면 A타입과 B타입은 특성불안의 수준이 낮을 것으로 기대되며, C타입과 D타입은 특성불안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13개 국립사범대학중 5개 대학을 표집하였는데, 이에 해당된 학교는 강원대학교, 공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등이다. 구체적인 표집인원은 표 1과 같다.

표 1. 표집인원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남자	101명	117명	104명	87명	409명
여자	114명	127명	116명	113명	470명
계	215명	244명	220명	200명	879명

### 2. 연구도구

#### 1) 진로결정수준 검사

사범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Osipow 등(1980)이 개발한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 CDS)를 고향자(1992)가 우리문화에 적절한 문장표현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의 진로

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그가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4점 척도의 자기보고식 문항 18개와 자유반응형 문항 하나가 첨가되어 전체 1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의 2문항은 진로와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수준을 나타내며 다음의 16문항은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전제조건을 확인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항은 피험자로 하여금 앞에서 반응한 내용을 명료화 할 기회를 주며 채점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문항을 사용하지 않았다. 채점은 문항 1-2와 문항 3-18을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문항 1-2는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확신수준을 의미하며, 문항 3-18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가 더 미결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문항 3-18을 역으로 채점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Osipow 등(1980)이 보고한 본 검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0 및 .82였고, Hartman과 Fuqua(1982)는 본 검사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DS와 SAT점수간에 단지 .06과 .07 정도의 상관만이 존재함을 발견하고 이처럼 정신적인 능력과의 상관이 낮은 것은 CDS의 타당도가 매우 높은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고향자(1992)는 번역본의 신뢰도 검증결과를 Cronbach의  $\alpha$  .86, 반분신뢰도 .80, 검사-재검사 신뢰도 .79 등으로 보고하였고, CDS와 의사결정 유형 검사간의 상관계수를 근거로 본 검사의 타당도를 입증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범대학생 293명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검사를 실시한 결과 Cronbach의  $\alpha$  .86, 반분신뢰도 .80, 거트만 반분계수 (Guttman split-half coefficient) .80 등으로 나타나서 고향자(1992)의 검증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 2) 진로준비행동 검사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진로준비행동의 측정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검사는 연구자가 시도적으로 직접 제작하였다. 진로준비행동 검사의 제작을 위해서 연구자는 몇 가지 기초작업을 수행하였다. 첫번째는 진로상담과 관련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두번째는 진로를 결정했다고 확신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그 같은 결정에 이를 때까지 수행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진술토록 하는 면담을 실시하였다. 세번째는 교육심리학 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 55명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진로 혹은 직업을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활동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서 각자 5가지 이상의 구체적인 행동을 써서 제출토록 하였다. 네번째는 외국에서 기존에 개발된 도구들 중에서 진로준비행동과 깊이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도구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도구들은 Career Exploration Survey(CES; Stumpf, Colarelli, & Hartman, 1983), Vocational Questionnaire II(Slaney, 1983), Career

Planning Questionnaire(Westbrook et al., 1985) 등이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처음에 20개 문항을 선정한 후에 교육상담 및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가 6명에게 개별적인 자문을 받아서 부적합하거나 의미가 중첩된다고 판단된 문항 4개를 삭제하고, 문항의 표현방식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16개 문항을 확정하였다.

사범대학생 293명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준비행동검사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 진로준비행동 검사의 신뢰도

신뢰도 종류	Cronbach $\alpha$	반분 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2주)
신뢰도 계수	.84	.74	.82

## 3) 진로정체감 검사

연구 대상자들의 진로정체감을 알아보기 위해서 Holland, Daiger 및 Power(1980)가 개발한 MVS(My Vocational Situation)의 정체감 척도(Identity scale)를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총 18개 문항으로서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대답하도록 되어있다. 이 척도의 점수는 “아니다”에 응답한 반응의 총 수로 계산되며, 높은 점수는 자신의 목표(goals), 흥미(interests), 성격(personality), 재능(talents) 등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그림(clearer picture), 즉 진로정체감(sense of career identity)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아니다” 혹은 “그렇다” 대신에 이를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

리고 채점을 역으로 실시하여서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검사-재검사가 보고한 Identity Scale의 내적합치도 계수(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ies)는 .87로 나타났다. Tinsley, Bowman 및 York(1989)은 본 도구와 진로관련 세 가지의 다른 도구들간에 상당한 정도의 중첩성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본 도구가 진로자아개념 명료성(vocational self-concept crystallization)을 측정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Holland, Johnston 및 Asama(1993)는 본 도구를 사용한 50여편의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이 도구가 적정한 수준의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소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dentity Scale을 우리말로 번안한 후 사범대학생 293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한 결과 Cronbach의  $\alpha$  .89, 반분신뢰도 .86, 거트만 반분계수 .85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 4) 특성불안 검사

대학생들의 불안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Spielberger 등(1983)이 개발한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를 우리말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래 이 검사도구는 상태불안 척도(State Anxiety scale)와 특성불안 척도(Trait Anxiety scale)로 구성되어 있다. 상태불안 척도는 반응자가 “지금 현재”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상태불안 척도는 “일반적으로 느끼는” 바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

이들 두 하위척도는 각각 2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응답방식은 각 문항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4점 척도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상 이들 두가지 하위척도중에서 특성불안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Spielberger 등은 STAI의 Kuder-Richardson(K-R 20) 계수를 상태불안 척도 .86-.95, 특성불안 척도 .89-.91로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말로 번안된 특성불안 검사에 대해서 사범대학생 293명을 대상으로하여 예비검사를 실시한 결과 Cronbach의  $\alpha$  .89, 반분신뢰도 .87, 거트만 반분계수 .87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 3. 자료수집 절차

검사의 실시는 먼저 표집 대상 학교별로 검사 협조자를 선정하였다. 검사 협조자는 대부분 해당학교의 교육학과 교수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검사 협조자를 직접 만나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검사과정의 표준화를 위하여 검사실시에 관한 표준적인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 검사를 실시하도록 요청 하였다. 검사는 1996년 9월 1일부터 9월 24일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검사시작 후 약 40분을 전후하여 검사를 완료하였다. 면담조사는 K대학에서 연구자의 “교육심리학”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 40명을 대상으로 개인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주로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4. 자료처리

수집된 검사자료는 연구문제의 성격에 따라 SPSS/PC+를 이용, 다양한 통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년간의 차이에 대해서 F검증을 실시하였고, 양자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상관분석을 활용하였다. 대상자들을 네가지 타입중의 하나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학년의 진급에 따른 타입분포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차분석(crosstab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분류된 각 타입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F검증을 활용하였고, 집단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1.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과 상호관계

먼저 진로결정수준이 학년 진급에 따라서 변화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년별 진로결정수준 점수 평균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동일 대상을 종단적으로 연구하여 분석한 것은 아니고, 학년간의 차이를 진로결정수준의 발달로 가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를 보면 진로결정수준은 4학년(52.63), 3학년(49.98), 1학년(49.80), 2학년(47.15)의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F=6.6018, P=.00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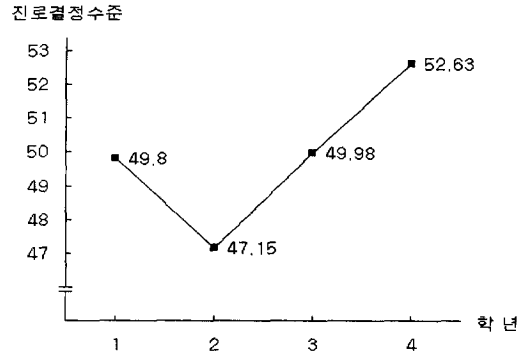


그림 2. 진로결정수준의 발달

이와 같은 각 집단별 결과들간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학년과 3학년만이 동질집단이고, 나머지 집단들은 모두 상호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1학년과 3학년이 동질집단인면서 양집단 모두 2학년보다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3학년이 2학년보다 높은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만, 2학년이 1학년에 비해서 낮은 것은 특이한 사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국립 사범대학들이 일부학과(특히 사회교육 및 과학교육)에 대해서는 계열별 모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1학년 학생들은 다음해에 있을 전공선택에 대비해서 진로결정수준이 2학년보다 높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2학년이 되면 바로 눈앞에 닥쳤던 전공선택의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진로 결정에 눈을 돌리게 되므로 1학년때보다 진로결정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진로결정수준은 1학년에서 2학년 진급후 다소 낮아졌다가 3학년, 4학년이 되면서 더 높게 발달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진로준비행동이 학년 진급에 따라서 변화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년별 진로준비행동 점수 평균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이 역시 동일 대상을 종단적으로 연구하여 분석한 것은 아니고, 학년간의 차이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로 가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를 보면 진로준비행동은 4학년(38.37), 3학년(33.03), 2학년(29.41), 1학년(28.85)의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F=41.4408$ ,  $P=.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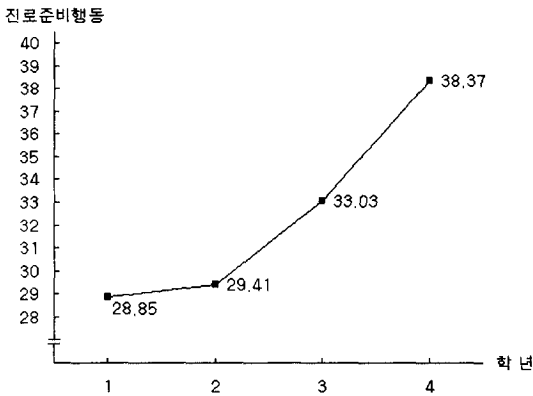


그림 3.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아울러 이 결과들간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1학년과 2학년만이 동질집단이고, 나머지 집단간은 모두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급할 시기에는 정체되어 있다가 3학년, 4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의미있게 높아진다

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진로발달에 있어서 인지(태도)와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본 연구에서 진로발달에 관한 인지 및 태도적인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검사도구는 진로결정수준 검사, 진로성숙도 검사 및 진로정체감 검사 등 3가지이다. 그리고 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는 진로준비행동 검사이다. 이들간의 상호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인지 및 태도측면과 행위측면간의 상관

변 인	진로결정수준	진로성숙도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	.31**	.32**	.34**

\*\*  $P<.001$

진로발달에 관한 인지 및 태도적인 측면의 측정치들과 진로준비행동의 측정치간에는 낮게는 .31부터 높게는 .34까지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결론적으로 진로발달에 있어서 인지 및 태도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2. 자기보고식 질문지와 면담에 의한 진로준비행동 측정결과의 일치성

먼저 사범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진로준비를 위해서 현재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자가 개인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면담이 끝나고 1주일이 지난후에 동일 대상들에게 진로준비행동검사를 실시하

였다. 이같은 절차가 끝난후에 연구자는 그들의 진로준비행동검사를 채점하여 점수를 산출하고, 검사점수에 따라 이들의 진로준비행동수준을 상, 중, 하의 3단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면담결과에 대한 축어록을 요약하여 “진로준비행동 면담결과 요약”을 작성한 다음에 3명의 평정자를 선정하여 개인별로 진로준비행동수준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평정자들로부터 평정지를 회수한 후에 각 개인에 대한 3명의 평정결과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상, 중, 하중에서 하나의 평정결과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나서 검사결과에 의한 평정결과와 평정자의 평정결과를 비교하여 그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검사결과에 의한 평정결과와 면담내용 평정결과간에 상호 일치를 보이는 사례는 34건이었고, 상호 불일치를 보이는 사례는 6건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양자간의 일치도는 85.0%로 나타나 진로준비행동검사의 타당도가 양호함을 입증해 주고 있다.

### 3.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준거로한 유형화

본 연구에서 사범대학생들을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준거로 하여 유형화 할 경우, 이와 같은 유형화의 틀에서 상정한 네가지 타입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사범대학생들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모두 낮은 D타입이 가장 많았고(42.0%), 이어서 진로결정수준은 낮으나 진

로준비행동은 매우 활발한 C타입이 두번째를 차지하였다(32.4%). 반면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A타입은 15.7%에 불과하였고 진로결정수준은 높으나 그에 상응하는 준비행동에 소홀한 B타입도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D타입과 C타입이 74.4%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사범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명확한 의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함과 동시에 교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은 있으나 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방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네가지 타입별 사례수 및 비율

구 분	사례수(명)	백분률(%)
A타입(ideal type)	138	15.7
B타입(pseudo type)	87	9.9
C타입(Behavioral type)	285	32.4
D타입(immature type)	369	42.0
계	879	100.0

### 4. 학년별 타입분포의 변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적인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학년이 높아질수록 네가지 타입의 분포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교차분석(crosstabs)을 통해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즉 타입의 분포비율은 학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준거로 사범대학생들을 유형화 할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A타입과 C타입의 구성비율이 높아지고 D타입의 구성비율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표 5. 학년별 타입분포 (단위: 명, %)

구 분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계
A 타입	19( 8.8)	29(11.9)	41(18.6)	49(24.5)	138(15.7)
B 타입	35(16.3)	18( 7.4)	18( 8.2)	16( 8.0)	87( 9.9)
C 타입	36(16.7)	64(26.2)	79(35.9)	106(53.0)	285(32.4)
D 타입	125(58.2)	133(54.5)	82(37.3)	29(14.5)	369(42.0)
계	215(100.0)	244(100.0)	220(100.0)	200(100.0)	879(100.0)

$\chi^2 = 94.1708$  significance=.0000

수 있으며, 여기에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의 발달적 속성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 5. 유형화된 각 타입별 특성

#### 1) 타입별 진로정체감의 차이

타입별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 타입(56.67), B타입(54.10), C타입(45.82), D타입(42.35)의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 $F=195.8193$ ,  $P=.0000$ ). 이 결과들간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모든 집단들이 상호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정체감은 타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2) 타입별 특성불안의 차이

타입별 특성불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D타입(50.71), C타입(50.19), B타입(46.90), A타입(42.63)의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 $F=40.4532$ ,  $P=.0000$ ). 이 결과들간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C타입과 D타입만이 동질적인 집단으로 밝혀졌고, 나머지 집단들은 모두 상호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C타입과 D타입은 특성불안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유형화된 4가지 타입의 특성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타입별 특성 요약

타입	특 성
A 타입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다. 자신의 장래 진로에 대해서 매우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특성불안의 수준이 매우 낮다.
B 타입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반면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낮다. 자신의 장래 진로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특성불안의 수준이 낮다.
C 타입	진로결정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감은 없으면서도 행동수준은 높은 활동지향적인 타입이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정체감이 낮다. 특성불안의 수준이 매우 높다.
D 타입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수준도 매우 낮고 실제적인 준비행동 수준도 낮다. 진로정체감이 낮은 반면, 특성불안의 수준은 높은 편이다.

## 논 의

여기에서는 먼저 연구수행 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끌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탐색을 하고, 이어서 본 연구의 결과가 갖는 시사점을 살펴본 다음에 진로상담의 실제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사항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본 연구에 대한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은 발달적인 속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진로발달 이론에서는 특히 진로준비행동의 발달부분을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진로발달 이론들은 대부분이 진로성숙도를 비롯한 인지 및 태도적인 측면에서의 발달만을 언급해 왔지 진로준비행동의 발달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로준비행동도 어느 시점에 이르러 갑자기 나타나는 1회적인 것이 아니라 발달적인 맥락에서 고찰되어야 마땅함이 드러난 이상, 진로발달 이론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적극 수용하고 정교화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그동안 도덕교육이나 혹은 사회심리학에서 중요한 연구의 주제가 되어 왔던 인지와 행동의 관계를 진로발달 분야에서 검증해 본 결과 진로에 관한 인지 및 태도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서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준거는 사실상 없는 상태이다. 단지 맥락은 다르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도덕

성 발달수준(인지)과 행동적 지표사이에 있어서 75개의 연구중 57개(76%)의 연구가 양자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Blasi(1980)의 연구, 그리고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태도와 행동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언급한 Kelly와 Mirer(1974)의 연구 및 Zannan와 Fazio(1982)의 견해를 지지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인지와 행동간의 정적인 관계의 영역을 보다 일반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네 가지 타입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실시할 경우 그들을 유형화 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각 타입에 적합한 개입기법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예컨대 A타입의 내담자들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절차적 사항들을 주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최근의 취업경향으로 볼 때 모의면접, 리허설 등은 이들의 취업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B타입의 내담자들에게는 먼저 자기 자신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self-identification)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에게는 진로준비행동 그 자체를 촉발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지시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C타입의 내담자들에게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개입이 중요한 관건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이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안수준이 높기 때문에 방향성이 결여된 준비행동에 과도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에게는 진로에 대한 태도

를 성숙시키기 위한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점에 주목하여 정보제공 및 의사결정훈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시키는 것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타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처치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기법, 진로탐색 프로그램, 의사결정훈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훈련도 병행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상담 내담자들을 유형화하는 준거로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라는 두가지 차원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행된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유형화 연구는 대부분이 어떤 준거들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보다는 다양한 검사를 실시한 후에 이에 대해서 요인분석(Osipow, Carney, & Barak, 1976; Schulenberg et al., 1988) 혹은 군집분석(Fuqua, Blum, & Hartman, 1988; Larson et al., 1988; Savickas & Jarjoura, 1991; Wanberg & Muchinsky, 1992)을 실시하여 하위타입을 분류하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로 밝혀진 하위타입들은 진로지도나 진로상담 실제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제한적이다. 유형화 연구의 접근상 미리 준거들을 가지고 수행한 것으로는 Jones와 Chenery(1980)의 연구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들은 ①결정성,

②편안수준, ③미결정의 이유 등 세가지를 준거로 하여 네가지 타입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러나 유형화의 두 축인 결정성이나 편안수준은 모두가 인지나 정서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실천적인 유용성에 제한을 갖는다. 따라서 행동적 차원을 첨가한 본 연구의 결과는 Jones와 Chenery(1980)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해 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유형화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하겠다.

다섯째, 유형화된 각 타입들은 몇 가지 변인들(진로정체감, 특성불안 등)을 준거로 볼 때 뚜렷하게 구분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 말로 번역되어 처음 사용된 검사에 의해서 측정된 진로정체감은 네가지 타입을 매우 의미있게 구별해 주는 구인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던 특성불안이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선행연구들(예컨대 Fuqua & Hartman, 1983; Gordon, 1981; Hawkins, Bradley, & White, 1977; Kimes & Troth, 1974)에서 밝혀진 중요성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나타내 주는 선별자로서 불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전체적으로 보아서 사범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진로정체감 점수의 전체 평균이 46.89점인데 이는 18점-72점의 점수범위를 고려할 때 중간수준(45점)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범대학이라는 특수 목적을 가진 곳에 입학한 하위층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 만큼 자신들의 장래 진로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도 전체평균이 32.42점에 불과하여 16점-64점의 점수범위를 고려할 경우 중간수준(40점)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년 별 분석에 있어서도 진로준비행동 점수가 가장 높은 4학년의 경우에도 38.36으로서 중간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진로정체감이 낮은 것은 아마도 교사가 되고자 하는 바람은 강하나 이의 달성에 대해서는 자못 회의적 것에 대한 반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범대학생들의 경우 교사로 진출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려고 할 때 그 대안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아울러 이들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은 것에 대해서도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대체로 사범대학생들의 진로준비 코어는 어느 정도 패턴화되어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타성화’라는 말이 가능하다. 즉 많은 학생들이 ‘남들이 하는 만큼만’ 진로준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패턴화된 코어는 서로에게 묵시적인 안도와 편안함을 안겨주고 학생들은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는 심리적인 기제가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결국은 기대만큼의 준비행동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 개발하여 사용한 진로준비행동 검사와, 번안하여 사용한 진로정체감 검사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진로발달에 관한 행동차원을 무시한 결과로 그

에 대한 측정문제도 매우 침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검사는 앞으로 이와 같은 부문의 연구와 실천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볼 때 진로정체감은 양자 모두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 검사는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지만,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그 유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의 실제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실시할 경우 이제는 진로성숙도나 진로결정의 정도와 같은 인지 및 태도의 측면뿐만 아니라 “진로준비행동”을 상담의 중요한 내용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진로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행동적인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범대학생들의 경우를 볼 때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에게 행동적인 노력을 촉발시킬 수 있는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도 행동의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결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진로상담 장면에서는 “현재 당신의 진로결정수준은 어느정도 인가?”라는 질문뿐만 아니라 “당신은 현재 진로준비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반드시 부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진로상담 연구자와 실천가는 항상 진로상담 내담자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진단과

차별적인 처치”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외국에서는 이를 위해서 수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실제에 적용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분야는 연구와 실천의 양측면에서 거의 미개적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진로상담 내담자들에게 동일한 처치를 하기보다는 내담자의 특성, 문제의 성격 그리고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입을 시도하기 위한 연구와 실천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들중 자신의 진로를 결정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의 일부도 진로상담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본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대학생들중에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성숙도는 매우 높은데 이에 비해서 진로준비행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B타입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인지와 태도적인 측면에서만 진로가 결정된 것이지 준비행동이 미약한 것으로 보아서는 진정한 진로결정자라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자신이 결정한 진로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갈등을 겪을 뿐만 아니라 방황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진로가 결정되었다고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학생들 중에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일부의 진로상담 내담자들에게는 심리상담을 병행하면 더욱 큰 상담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진로문제 때문에 상담을 신청한 내담자에게 본래의 문제에서 벗어난 심리상담만을 실시하는 ‘심리적 환원주의’의 오류에 빠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김계현, 1994), 심리상담적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진로에 관한 상담만을 실시하는 것도 똑같이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특히 불안은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에서 수행된 여러 연구들에서도 불안이 ‘결단성 부족’과 깊이 관련됨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불안의 수준이 높은 내담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접근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진로상담 내담자의 유형화 연구에 있어서 각 하위타입들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상정한 변인 이외에 다양한 사회·심리적인 변인들을 연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자아존중감(self-esteem), 통제의 소재(locus of control), 자아정체감(self-identity), 자아개념(self-concept), 문제해결 행위 및 태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problem-solving self-appraisal) 등의 구인들은 각 타입들을 보다 명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준비행동검사를 보다 정교화시키고 그 타당성을 폭넓게 검증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 도구는 시도적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문화에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보다 폭넓게 커버할 수 있도록 문항의 내용을 보완하고, 현재 구성된 문항들에 대해서도 보다 세분화시키는 등의 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을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진로발달에 있어서 인지(태도)와 행동과의 관계에서 볼 때 양자를 매개하는 변인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도덕성 발달 분야의 연구 모형이나 태도와 행동간의 관계규명에 활용된 사회심리학의 연구모델(합리적 행위이론, 계획된 행동이론 등)을 적용하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는 오직 사범대학생들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을 포함시키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타입들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다른 표집을 통한 검증의 예가 아직까지 없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표집을 통한 반복연구에 의해서 검증될(cross-validated)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각 타입별로 적합한 개입방법이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진단적인 유형화의 최종목표는 차별적인 처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타입별 개입기법들도 별도의 검증없이 예시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에 대한 실증적인 효과검증 연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담의 연구결과와 실천간의 간격을 통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상담 실천가

들은 자신들이 활용한 기법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론적인 지지를 필요로하면서도 상담 성과연구에 무관심하고, 상담 연구자들은 보다 효율적인 상담실체에 요구되는 경험적 지식의 구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예컨대 Sexton & Whiston, 1996)이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실천 지향적인 연구, 연구결과에 바탕을 둔 실천, 그리고 양자간의 환류(feed-back)가 충분히 가능한 측면에서의 연구와 실천이 요망된다.

## 참고문헌

- 고향자(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계현(1994). 상담심리학의 최근경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6(1), 142-170. 서울: 한국심리학회.
- 김봉환, 김계현(1995). 진로미결정에 관한 연구동향과 향후의 연구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7(1), 20-43. 서울: 한국심리학회.
-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1995). 학생연구, 30(1). 서울: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한정신(1991). 한국대학생 문제진단검사 개발연구. 학생생활연구, 17, 1-53.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지도연구소.
- Blasi, A.(1980). Bridging moral cognition and moral ac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8, 593-637.
- Fuqua, D. R., Blum, C. R., & Hartman, B. W. (1988). Empirical support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career indecisio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 365-373.

- Fuqua, D.R., & Hartman, B.W.(1983). Differenti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2, 27-29.
- Gordon, V.N.(1981). The undecided student: A developmental perspectiv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 433-439.
- Hartman, B.W., & Fuqua, D.R.(1982).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adapted for college student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1, 69-77.
- Hawkins, J.G., Bradley, R.W., & White, G.W.(1977). Anxiety and the process of deciding about a major and voc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398-403.
- Holland, J.L., Daiger, D.C., & Power, P.G.(1980).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Holland, J.L., & Holland, J.E.(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04-414.
- Holland, J.L., Johnston, J.A., & Asama, N.F.(1993). The Vocational Identity Scale: A diagnostic and treatment tool.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 1-12.
- Jones, L.K., & Chenery, M.F.(1980). Multiple subtypes among vocationally undecided college students: A model and assessment instru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469-477.
- Kelly, S., & Mirer, T.W.(1974). The simple act of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 572-591.
- Kimes, H.G., & Troth, W.A.(1974). Relationship of trait anxiety to career decis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277-280.
- Larson, L.M., Heppner, P.P., Ham, T., & Dugan, K.(1988). Investigating multiple subtypes of career indecision through cluster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39-446.
- Lowe, B.(1981). The relationship between vocational interest differentiation and career undecidedn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 346-349.
- Lunneborg, P.W.(1978). Sex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5, 299-305.
- Mitchell, L.K., & Krumboltz, J.D.(1984). Research on human decision making: Implications for career decision making and counseling. In S.D. Brown & R.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pp. 238-282). New York: Wiley.
- Osipow, S.H., Carney, C.G., & Barak, A.(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233-243.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Yanico, B., & Koschier, M.(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 (3rd rev.). Columbus, OH: Marsthor Consulting and Press.
- Osipow, S.H., & Reed, R.(1985). Decision making style and career indecis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7, 368-373.
- Riggio, R.E., & Throckmorton, B.(1987). Effects of prior training and verbal errors on students' performance in job interviews.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24, 10-16.
- Rose, H.A., & Elton, C.F.(1971). Attrition and the vocationally undecided stud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 99-103.
- Salomone, P.R.(1982). Career counseling: Steps and stages beyond Parson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 218-221.
- Savickas, M. L., & Jarjoura, D. (1991). The career decision scale as a type indicat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85-90.

- Schulenberg, J.E., Shimizu, K., Vondracek, F.W., & Hostetler, M.(1988). Factorial invariance of career indecision dimensions across junior high and high school males and fema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3, 63-81.
- Sexton, T.L., & Whiston, S.C.(1996). Integrating counseling research and practi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4, 588-589.
- Slaney, R.B.(1983). Influence of career indecision on treatments exploring the vocational interests of colleg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55-63.
- Slaney, R.B.(1988). The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In W.B. Walsh & S.H. Osipow(Eds.), *Career decision making*(pp. 33-7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peas, C.M.(1979). Job-seeking interview skills training: A comparison for four instructional techniqu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6, 405-412.
- Spielberger, C.D., Gorsuch, R.L., Lushene, R.E., Vagg, P.R., & Jacobs, G.A.(1983). *State-Trait Anxiety manual*.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tumpf, S.A., Colarelli, S.M., & Hartman, K.(1983). Development of the Career Exploration Survey(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191-226.
- Taylor, K.M.(1982). An investigation of vocational indecision in college students: Correlates and moderat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1, 318-329.
- Tinsley, H.E.A., Bowman, S.L., & York, D.C.(1989). Career Decision Scale, My Vocational Situation, Vocational Rating Scale: Do they measure the same construc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115-120.
- Walsh, W.B., & Lewis, R.O.(1972). Consistent, inconsistent and undecided caree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 309-316.
- Walsh, W.B., & Osipow, S.H.(1973). Career preferences, self-concept and vocational maturity.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1, 287-295.
- Wanberg, C.R., & Muchinsky, P.M.(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1, 71-80.
- Westbrook, B.W., Sanford, E.E., O'Neal, P., Horne, D.F., Fleenor, J., & Garren, R.(1985). Predictive and construct validity of six experimental measures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7, 338-355.
- Winer, J.L.(1992). The early history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0, 369-375.
- Zannan, M.P., & Fazio, R.H.(1982). The attitude behavior relation: Moving toward a third generation of research. In Zanna, M.P., Higgins, E.T., & Herman, C.P.(Eds.), *Consistency in social behavior: The Ontario Symposium*, 2, 283-301, Hillsdale, NJ: Erlbaum.

#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Bong-Whan kim

Kay-Hyon Kim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s interested in investigating the types of career development in the Korean college students. Even if career decision has been one of the most frequently studied variable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uch as job search and preparing for job interview or job tests need to be investigated. When the two variables ar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we can assume four different types of career development: (A)high career decision level and high career preparation behavior level, (B)high decision level but low preparation level, (C)low decision level but high preparation level, and (D)low decision level and low preparation level. The present study is to inquire if all the four types exist in Korean college students, and by what ratio and to inquir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ypes and other variables such as age(school year), career identity and anxiety.

Eight hundred and seventy-nine students were sampled from five universities, which were randomly sampled out of thirteen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A set of questionnaires(Career Decision Scal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Career Identity Scale, Trait Anxiety Inventory) were administered in each of the five institutes. The administrators were chosen out of the professors of Education of the sampled institutes, who volunteered to cooperate with the project. And the statistical techniques of frequency analysis, ANOVA, Duncan's method for multiple compari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crosstabs using SPSS/PC+ were used to examine the research problems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s: (1)The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age(school year) of the college students.

They develop as the students go to the higher class in college. (2) Actually, all the four types of students were found among the college students (A type: 46, 15.7%, B type: 29, 9.9%, C type: 95, 32.4%, D type: 123, 42.9%). (3) Among freshmen and sophomores, over fifty percent of students are categorized as D type and only about ten percent are A type. But, the juniors and seniors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younger students. (4) Each subtype has a unique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the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identity, and trait anxiety.

Despite some limitations, this study provides rather strong empirical data against the uniformity myth for the career indecision, which has clear implications for the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And we suggest a need to replicate, but especially refine, the results by means of utilizing more clearly defined samples and variables that better differentiate. The extensive assessment across more specific populations and broad areas of functioning should allow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and individualized treatment plans.